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제1독서 : 이사 40, 1-5. 9-11

제2독서 : 2베드 3, 8-14

복 음 : 마르 1, 1-8

술정이

"너희는 주의 길을 밟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마르 1, 3)

강 론

소 리

우리부터 회개해야지요?!

방의성 신부 / 송학동 천주교회

오늘,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주일에 듣는 복음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회개를 해야 할 사람, 회개해야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극히 상식적인, 그러나 선배라고, 어른이라고 또는 상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 양식을 반성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꺼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거짓과 사기, 억압과 횡포를 일삼는 대다수의 정치인들, 수사 기관 요원들이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용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 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은 사제인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 봅니다.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내고, 너무 제 잘난 멋에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 받기 위해선 먼저 사랑하고, 용서받기 위해선 먼저 용서하며, 존중받기 위해선 먼저 존중하라고……’라는 문구를 자주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모두가 시인할 것입니다.

인권 주일에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의식하고, 그 동안 안일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반성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이 겸손하게 살 때, 거짓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식없는 자세로 용서를 청할 때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무시당하며 상처받는 형제들에게 아직도 인권이 실현되고 존중되는 구석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인도의 마더 데레사는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받고 있다. 그 마더 데레사가 재발성 심장병으로 위독하단다. 그런데도 특별간호를 받는 것이 쉽다며 “가난한 사람들처럼 죽어가도록 내버려 달라”며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마더 데레사는 1910년 8월 26일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예에서 알바니아의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때 아일랜드에 있는 로테토 수녀원에 들어가 스물한 살 때 ‘예수의 작은 꽃’으로 알려진 리지외의 ‘데레사’를 수도명으로 선택, 허원했다. 서른 여섯 살 때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살기를 희망, 로마의 허락을 받아 로테토회의 수도복을 벗었다. 인도 고유의 옷인 ‘사리’와 이마에 푸른 줄무늬를 하고 어깨에 십자가를 맨 새 수도복을 입었다.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71년에는 교황 요한 23세의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올해 그녀의 나이 86세. 얼마전 심장병과 폐렴증세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마더 데레사의 건강회복을 간절히 기도하자.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

술정이 산책



2000년 대회년

희년의 근거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1.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된다. 희년에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 이전 50년 동안 가난 등의 이유 때문에 팔린 땅이 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씨족이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되면, 가까운 친족 중에 히브리말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후견인이 나서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가 계속 종살이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를 맡은 주인은 그 빚을 삭쳐 주고 무조건 그를 풀어 주어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희년에 관한 규정이다.

2.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는 이런 희년의 규정이 생겼을까? 희년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느님의 것이다. 희년 규정을 보면 하느님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신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 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요 거류민일 따름이다.”(레위25,23)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는 땅이 하느님의 소유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출애15, 13. 17), 예언서들과 시편과 그 밖의 이스라엘 경신례 전승 안에 되풀이 되어 나온다. 하느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3. 결국,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고 가나안 땅은 상속의 내용이 되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성조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땅은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에게 속

한 땅이지만 그분께서 상속으로 넘겨 주신 땅에서, 그분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남의 땅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더없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구원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요, 거류민”일 따름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거류민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거주는 하되 이스라엘 종족이 아닌 백성을 말한다. 이들은 땅을 빼앗긴 가나안족의 후예들이거나 이주민들이다.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고용인들 밑에서 품을 팔아 생존한다. 이스라엘 가장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 고용된 자들은 보호와 안정을 보장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위치가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출애20,20). 그런데 이스라엘인들 자신 또한 하느님 앞에서는 이런 거류민들의 처지와 같다. 그들은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땅의 임자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4. 사람을 보호하려는 희년의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다. “그들은 내가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레위25,42.55 ; 출애20,2 참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에집트에서 빼내셨다. 에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된 이들은 이제 하느님 자신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제 동료 이스라엘인을 자신의 개인적 소유로 생각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비싼 값으로 사서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자유로운 종들은 서로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된다.

-「대회년 길잡이 1권」에서 발췌-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헤드폰
오현종(스테파노)
유미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우체국
☎ 84-0015~6

무스탕·가죽의류

공장 직판
양 덕 레(도미나)
의산 기계공고 뒤(해양산업)
☎ (0653) 841-9622
54-4854

LG 에어콘

에어콘·온풍기·공기청화기·제빙기
업소용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97년도 신제품 에어콘 예약증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원승연(도밍고)
백제로 방상경기장 맞은편
☎ 241-2000, 227-0902

로얄석유

쌍용 석유, 경유 신속배달
말통배달·보일러 청소
이명길(요셉)
☎ 245-9277, 3533
휴대폰 011-654-9277

잠 깐

쌍치 공소 경당 봉헌식

오늘 8일(일) 오전 11시, 교구장 이병호 주례로 봉헌식을 갖는다. 쌍치 공소 경당은 대지 720평 건평 30평으로 전통적인 한옥으로 예쁘게 지어졌다. 이렇게 예쁘게 지어지기까지는 순창 본당 권이복 신부와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 부부, 그리고 내동, 옥산, 석동, 종암, 학성 등 5개 공소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명되지 않는 교우들, 모두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게 힘을 쏟아 지었기에 더 아름다운 경당이 지어진 것 같다.

5개 공소 신자들이 주일에는 한데 모여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예쁘게 경당을 지은 만큼 이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는 더 힘있게 불려질 것이고, 이곳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미사 및 성지안내 봉사자 찾습니다

언어-영어, 문의 ☎ 85-0041 사목국

1. 자선의 날 2차헌금 : 12월 15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2. 신학교 최종선행 모임 : 12월 9일(월) 오전 10시, 교구청
3. 휴학 신학생 모임 :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4. 예비 신학생 모임 : 12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교구청
5. 제 5회 가톨릭 사진가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 : 12월 7일 ~ 12일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6. 방송인회 월례모임 : 12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가톨릭센터
7. 군산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성당
8. 천호 피정 안내 : 12월 21일 ~ 22일, 주제 - 하느님과 이웃과의 화해(고백 성사), 강사 - 유영봉 신부, 문의 ☎ 73-6600
9. 기억할 사제 : 13일 김성진(토마스) 신부 13주기
- * 축! 영명 : 17일(성나자로) 김정민 신부님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254-2631

김회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요십이 (1215) 김병모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A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본당 판공 일정 : ①10일(화)~13일(금) 후 3시~5시 30분
②17일(화)~20일(금) 미사 후

※사무실에서 97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시고 성사표 가져가십시오.
2. 성우회 임원개편 : 회장-노광용(비오), 부회장-최광석(베드로)
※수고하시겠습니다.

-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 사무실
- 분당 달력 배부 : 반회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람
- 다음주(15일)은 자선주일 : 2차헌금 있음
- 모임 : ①장우회, 대전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11일, 어머니미사 후
③자비의 모후Cu.-15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대전회, 해설-한기성, 독서-①노광용 ②윤경자
신자들의 기도-서용문, 정경우, 봉헌-전도열 부부
- 차주전례 :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M. E., 해설-이봉기, 독서-①노판석 ②문선자
신자들의 기도-손만술, 신순이, 봉헌-윤석연 부부
- 금주청소 : 중노 23, 24반
- 차주청소 : 중노 25, 26반

□ 지난주 봉헌금 : 918,350원

□ 교무금 : 3,048,000원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FAX 88-3455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 오늘은 인권주일 : 2차헌금 실시
- 대림절 신앙감언회 : 13일(금) 후 7시 30분
강사-김혁태 신부님, 주제-희년의 그리스도적 신앙의 의미
- L. M. 연차 친목회 : 11월(수) 10시
- 성탄 판공성사 : 11일(수) 다가동, 고사동, 12일(목) 태평동, 기타동, 13일(금) 진북동, 완산동, 14일(토) 중앙동, 신일반 15일(일)
학생, 직장인
시간-평일 전 10시~12시, 후 7~9시 토, 일 후 3~5시, 7~9시
- 병자 봉성체 및 판공성사 : 18일(수) 후 2시
- 다음주(15일)은 자선주일 : 2차헌금 실시
- 예비자 집중교리 : 16일~21일, 후 7시 30분
- 성우회 임원 개편 : 회장-이현기(안드레아), 부회장-김영기(그레고리오), 총무-문금철(시몬), 회계-손승환(베드로), 감사-한용석(바오로) ※ 구임원 수고 하셨고, 신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 성탄복행 행사에 신인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금주모임 : 요셉회, 꾸리아, 청년회
- 주간모임 : 안나회-12일(목) 10시 자모회-12일(목) 7시 30분
- 차주모임 : 빠스카회
- 금주전례 : 해설-최우남, 도서-최정환 부부, 봉헌-이현기 가족
- 차주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문금철 가족
- 성당청소 : 14일(토) 사도의 모후pr, 이 땅의 빛pr.
- 감사헌금 : 빠스카회(25만-페스전화 88-3455), 원진회 10만
□ 지난주 봉헌금 : 792,350원 □ 교무금 : 5,143,100원

상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김병덕
FA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오늘은 대림 제2주일 :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합시다.
-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모임 :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 차주모임 : ①새영재자모임, 성가대, 애령회봉사자모임
②장년회-18일(수) 후 7시, 이순기형제 자택
- 성탄절 재대꽃 봉헌 :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성소루원회비 납부 : 세대별로 1천원이상-구역장님께
- 가정방문 및 판공성사 : 10일-백암, 신홍 11일-어두리
12일-내정 13일-남관, 기타지역
- 성당청소 : 금주-셋째주 pr.
차주-평화의 모후pr.
- 금주전례 : 해설-최원규, 독서-①박귀철 ②송정자
봉헌-성대직 가정
- 차주전례 : 해설-우경숙, 독서-①이옥동 ②이준자
봉헌-차만순, 양순주 자매

□ 지난주 봉헌금 : 182,600원 □ 교무금 : 320,000원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FAX 86-4929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오늘은 본당의 날입니다.

- 공동미사 및 나눔 : 오늘 전 10시 30분
연차 총 친목회 및 기쁨잔치 : 오늘 후 1시
※ 전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미니도서관 운영 : 천주교 관련서적(성인전, 성서날말사전, 천주교용어사전 등) 많은 이용 바람
- 초등고 학생 친목회에절 및 고백성사
①중고동부-7일(토) 후 5시 30분
②초등부-14일(토) 후 3시
-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 수요일-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매주 일요일-후 5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 예비자분들은 빠짐없이 출석 바람
- 금주모임 : ①프란치스코삼회-8일(일) 후 2시, 강당
②성심회-11일(수) 전 10시 30분, 회합실
③율례야-12일(목) 후 7시 30분, 회합실
- 차주모임 : ①성모회-15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 청소년안내 : ①금주-점의의 동정녀pr.
②차주-사랑의 샘pr.

□ 지난주 봉헌금 : 916,400원 □ 교무금 : 2,738,000원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축 ! 강루시아 수녀님 영명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3일)

- 금주모임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주간모임 : ①사라회-10일 전 11시
②나자렛회-10일 전 11시
③사베리오회-11일 후 7시 30분
④돈보스코회-11일 후 7시 30분 ⑤다비드회-14일 후 3시
- 레지오 단원 연차 총 친목회 : 바느의 성모 꾸리아, 애너의 모후 꾸리아 14일(토) 후 3시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은 적극적 참여바람.
- 성탄 판공 성사
①일시 : 10일~15일 전 10시~12시, 후 2시~5시, 저녁미사 후
②판공성사표 배부 및 면담 : 본당 사무실
③고백소 : 성당안 고백소, 사랑방
④구역 일정 : 남노송동 전구역 및 기타동반-10일(화), 서교동, 서완산동 전구역-11일(수), 경원동, 전구역-12일(목), 중앙동, 주구역 및 기타동-13일(금), 중·고동부 학생(미사전, 후)-15일(일)
- 감사헌금 : 일백만-익명 ※감사합니다.
- 차주모임 : ①바느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성지개발 현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797,790원 □ 교무금 : 5,214,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상섭
FA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황의록

◎성전신축현금 신입을 연말까지!

- 오늘은 인권주일입니다.
-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각 Pr. 별로 장기자랑 준비-9일 7시 30분
정 루시아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합니다.(13일)
- 예비자 입교식 : 97년 1월 7일 후 8시-예비자를 봉헌합니다.
- 오늘모임 : 천주의 모후Cu.-2시 30분
- 주간모임 : 제대회-10일 전 10시
사랑의 성모모임-13일 미사 후
- 감사합니다
①성전 신축 봉헌금 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윤금철 3, 구본술 3, 김경임 2, 이영희 1, 장영일 1, 이소정 1
정용운 1, 전영준 1, 문희숙 0.5
소계 13.5 총계 518.4
②성전 신축 봉헌금 납부
윤인홍 200만, 우영진 2만, 진영춘 10만, 김재영 5만, 김정수 50만,
김영숙 3만, 김복희 10만, 강천년 쇠 27만2천, 김명호 10만,
박순희 20만, 김정남 20만, 최호숙 10만, 김광춘 2만, 서명래 20만,
김대우 10만, 박미화 6만, 김형식 20만, 이민기 10만,
정용은 3만9천, 이우영 20만, 송윤섭 2만, 구본술, 100만,
장수철 10만, 익명 금팔찌 10만
소계 5,711,000원 총계 88,003,820원

□ 지난주 봉헌금 : 2,003,500원 □ 교무금 : 2,776,700원